올들어 전남에서 전국규모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4월까지 도내에서 전국대회가 총 49개가 열렸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53%나 늘어난 것으로 전남 스포츠마케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영암 백룡산과 활성산 일원에서 열렸던 제2회 월출산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스포츠 전남' 시대 활짝

강진·화순·목포·영광 등 각 시·군 마케팅 효과

4월까지 전국대회 49개 유치…전년비 53% 늘어

동계전훈 통한 남도의 인심·음식·멋 홍보도 한 몫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아온 전남이 전국규모대회도 잇따라 개최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전남에서 열린 전국규모대회는 총 49개(24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도에서 개최한 32개 대회보다 무려 53%가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총 140개 대회가 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축구·태권도·야구·사이클·럭비·배구 등 6개 종목 11개 대회를 유치한 강진이 22개 시·군 중 최다 개최지로 집계됐다. 강진에서는 앞으로 검도·낚시·배드민턴 등 20개 대회가 더 개최될 예정으로 올 한햇동안 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회를 유치한 곳으로 나타났다.

강진이 이렇게 전국대회를 대거 개최하게 된데에는 축구전용경기장·베이스볼파크·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대회를 치를만한 정규 규격의 체육시설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다, 군이 활발하게 대회 유치에 나서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최대규모의 체육관인 하니움체육관이 있는 화순도 배구·검도 등 4개 대회를 잇따라 개최했고, 앞으로 8개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올들어 초·중 축구와 생활체육 족구 등 2개 대회를 치른 목포에서는 앞으로 볼링·카누·하키·윈드서핑 등 9개 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순천에서는 스토브리그 축구와 스포츠토토 정구대회가 열렸고, 배드민턴·탁구·댄스스포츠 등 11개 대회가 개막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최신시설의 스포티움이 있는 영광은 올해 예정된 18개 대회 중 농구·궁도·배구·육상 4개 대회를 치렀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남도의 따뜻한 기후, 맛있는 음식, 훈훈한 인심 등이 동계훈련을 통해 알려지고 아울러 도내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회 유치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전국대회를 치르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에서 37개 종목 2179팀 55만명이 동계훈련차 전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계훈련지로 강진·해남·광양·순천·목포 등 5개 시군이 인기가 많았으며, 초·중·고팀 1031개, 대학 125개, 그리고 일반·기업체팀이 1023개팀이 겨울캠프를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동계훈련 기간 중 90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배드민턴·요가 배우며 언어·문화 차이 극복

광주시생체회,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지원 확대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이하 시생체회)가 지난해 다민족·다문화 외국인들과의 어울림 장 마련을 위해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외국인노동자 생활체육교실'에 대해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지원'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되는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다문화 가족과 함께 일반가족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배드민턴·요가·에어로빅 등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 전문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수업은 주1회 2시간 이상으로 서구다문화지원센터·광산구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준 회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사업'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활체육 혜택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인테르 밀란 기선 제압…바르샤에 3-1 역전승

챔스리그 4강 1차전

인테르 밀란(이탈리아)이 항공대란의 여파로 버스를 타고 1000㎞를 달려온 '디펜딩 챔피언' 바르셀로나(스페인)에 먼저 일격을 가하면서 유럽 프로축구 정상을 향해 성큼 나아갔다.

인테르 밀란은 21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세페 메아차에서 열린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19분 페드로 로드리게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베슬러이 스네이더르와 마이콘·디에고 밀리토의 연속골로 3-1 역전승을 거뒀다. 인테르 밀란은 오는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원정 2차전에서 한 골 차로만 패해도 결승에 오른다.

인테르 밀란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두 차례 격돌해 1무1패를 기록했지만, 결승 진출의 길목에서 다시 맞붙어 깨끗하게 설욕했다.

바르셀로나는 득점 선두인 리오넬 메시가 침묵하면서 대회 2회 연속 우승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주장 카를레스 푸욜이 후반 6분 밀리토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경고를 받아 2차전에 뛸 수 없게 된 것도 부담이다. 다만, 조별리그에서 인테르 밀란을 홈으로 불러들여 2-0으로 이겼던 터라 반전을 벼르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남녀 MVP 2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NH농협 2009~2010 V-리그' 시상식에서 공격상을 받은 가빈(삼성화재 왼쪽)과 몬타뇨(KT&G)가 수상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英 언론 "맨유, 퍼거슨 감독 후임 물색"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25년 동안 지휘봉을 잡아온 '명장' 알렉스 퍼거슨(69)의 후임을 물색하고 나섰다.

영국 대중지 '더 선' 21일(한국시각) '누가 퍼거슨 감독의 자리를 원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퍼거슨 감독이 맨유 이사회에 한 시즌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맨유가 퍼거슨 감독의 뒤를 이을 사령탑을 물색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맨유는 축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 수소문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인물은 인테르 밀란(이탈리아)을 이끄는 조제 무리뉴 감독이다.

'더 선'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파비오 카펠로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 호셉 과르디올라 바르셀로나 감독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퍼거슨 감독은 자신의 후임으로 에버턴을 이끄는 데이비드 모예스(47)를 지목했다고 '더 선'은 전했다. /연합뉴스

'2018 월드컵 유치 홍보' 히딩크 26일 방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64) 감독이 오는 26일 한국을 찾아 2018년 및 202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나선 네덜란드-벨기에 월드컵 유치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탠다.

히딩크재단 관계자는 21일 "히딩크 감독이 오는 26일 한국을 찾는다"며 "이번 방문은 2018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나선 네덜란드-벨기에 유치위원회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이다"고 밝혔다.

히딩크 감독의 방한은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인 '히딩크 드림필드 3호' 준공식 참석 이후 10개월 만이다.

네덜란드-벨기에 월드컵 유치위원회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서정원, 김태형(이상 올림픽대표팀 코치), 이민성(용인시청 플레잉코치) 등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들이 참석하는 축구 클리닉과 미니 올스타전도 치른다. /연합뉴스

道公 신임 감독 어창선씨

지난 1월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사령탑에서 중도 하차했던 어창선(42) 전 감독이 도로공사 지휘봉을 잡는다.

도로공사는 21일 GS칼텍스 수석코치로 자리를 옮긴 신만근 전 감독의 후임으로 어창선 감독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흥국생명 감독에서 물러난 뒤 3월부터 세화여고 배구단을 지도했던 어 감독은 이날부터 도로공사에 합류, 팀 재건 작업에 나선다.

어 감독은 구단을 통해 "선수들과 서로 믿는 플레이를 펼쳐 팀을 다시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조선대 황인섭 MVP 영예

보성 역도대회 105㎏급 인상·용상·합계 3관왕

황인섭(조선대)이 전국 최고의 역사(力士) 자리에 올랐다.

황인섭은 21일 보성 다향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58회 전국춘계남자역도대회 105kg급에서 3관왕과 함께 최우수선수까지 거머쥐었다.

이날 경기에서 황인섭은 인상 147kg, 용상 181kg을 들어 합계 328kg을 기록해 세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대한역도연맹은 인상 대회기록을 종전 144kg에서 3kg 늘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황인섭을 대학·일반부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한편 +105kg급에서는 신용진(조선대)이 인상 130kg, 용상 180kg, 합계 310kg을 기록해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